

중소기업 CEO 경영정보

CEO Management
Information

□ 2005년도 산업경기 전반적 둔화 전망

□ 뉴스포커스 : 은행 예·적금에 대한 특별예대상계 실시 등

□ 스페셜리포트 : 일본경제 회생의 원동력과 시사점

□ CEO광장 : 대기업,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적극 지원 등

□ 경제산책 : 내부회계관리제도 등

2005년 산업경기 전반적 둔화 전망

□ 전반적인 전망

- 2005년에는 조선과 해운산업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, 자동차와 IT산업은 둔화하고, 건설 경기는 부진세 지속 예상

□ 2005년 주요 산업 전망

- 1) 조 선 : 후판 가격 상승, 달러 약세 등이 수익성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주량의 기술적 조정이 예상됨
- 2) 해 운 : 상반기를 정점으로 이후 연착륙 예상
- 3) 자동차 : 2005년 자동차는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및 가격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
- 4) IT산업 :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둔화 전망
 - (반도체) 반도체 수요시장의 축소 및 공급과잉 예상으로 침체 국면 돌입 예상
 - (정보통신) 유럽 무선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기대와 하반기 LCD 가격 개선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, 내수 및 세계 경기 둔화로 2004년과 같은 실적 호조를 기대하기에는 미흡
- 5) 철 강 : 원화 강세로 수출의 내수 전환이 예상되며, 기술적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
- 6) 건 설 : 2005년 건설 수주는 공공 및 토목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되겠지만,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5.9% 감소한 82.7조원 전망

※현대경제연구원('04. 11. 23)

□ '04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('04. 11. 29, 통계청)

- 생산은 전월대비 5.7%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, 사무회계용기계 감소, 자동차의 증가세 둔화로 전반적으로 증가세 둔화(전월과 비교하면 0.9% 감소)
- 제조업평균기동률은 전월에 비해 0.4%p 증가한 80.0%를 나타냄
- 생산자제품출하는 4.9%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
- 도·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.3% 감소(전월에 비해서는 1.2% 증가)
- 설비투자는 전기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투자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.9% 감소
-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.5로 전월보다 0.4p 감소
- 향후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.2%(전월과 동일 수준)

뉴스포커스

□ 은행 예·적금과 대출금에 대해 특별예대상계 실시

('04. 11, 금감위·금감원, 은행연합회)

- 실시기간 : '04. 12. 1 ~ '04. 12. 31
 - ※ 1달간만 실시, 기간경과후에는 신청불가능
- 적용이율 등
 - 상계대상 예·적금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
 - ※특별예대상계에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경과기간을 예치기간으로 보아 연이율을 적용
 -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
- 문 의 처 : 거래은행 영업점

□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추진('04. 11,

금감위·금감원)

○ 배경 : '04. 7. 7일 정부의「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」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,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, 적극적인 지원책 추진 필요

○ 구체적 추진사항

-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,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적극 대응
-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적극 추진
-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,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

□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('04. 11, 23, 재정경제부)

과세 대상	현행	개편안	
주택	○토지·건물 구분 평가·구분과세 ·토지 : 종토세 (0.2~5%) ·건물 : 재산세 (0.3~7%)	○통합평가·통합과세 ○낮은 세율 (0.15~0.5%, 3단계)로 재산세 과세	○소유주택가액 9억원 초과분은 높은 세율(1.0~3.0%, 3단계)로 과세
나대지	○종토세 0.2~5%	○낮은 세율 (0.2~0.5%, 3단계)로 과세	○소유나대지가액 6억원 초과분은 높은 세율(1.0~4.0%, 3단계)로 과세
빌딩·상가·사무실 등 부속토지	○종토세 0.3~2%	○낮은 세율 (0.2~0.4%, 3단계)로 과세	○소유토지가액 40억원 초과분은 높은 세율(0.6~1.6%, 3단계)로 과세
사업용 건물	○재산세 0.3%	○세율인하(0.25%)	(과세 안함)

※ 현재, 건물은 재산세로,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지방세는 재산세로,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함

시행시기 : 2005년도 과세분 (2005.7월 최초 과세)부터 적용

스페셜리포트

□ 일본경제 희생의 원동력과 시사점 ('04. 12, 삼성경제연구원)

◎ 최근 일본경제 상황

- 경제의 호조세 지속 ('02년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)
 - 수출과 설비투자 활성화 ⇒ 주택투자 민간소비 회복으로 파급
 - 기업의 수익성 개선 : 상장기업의 경우, '04년에 2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 경신

◎ 일본경제 희생의 원동력

○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

- 중국경제 확대로 대중국 수출 호조 (對중국 수출 매년 30%이상 증가)
- 디지털 가전경기 호조 (최근 수년간 디지털가전의 출하가 연평균 50%이상 신장)
- 설비투자가 호조세로 전환 ('02년 투자리수 감소세에서 '03년 이후 큰 폭 증가)

○ 기업의 희생노력

-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적은 매출로 이익을 내는 체질로 전환 ('00년 이후 대대적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절감, 기업간 사업통합·재구조 적극 추진)
- 불황기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

- 생산혁신을 통한 제조기반 강화 (끊임없는 공정 혁신과 코스트 삭감)

○ 정부의 민간 활력 지원

- 재정투입보다는 재정·경제·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에 주력
- 정부 스스로 조직개편, 은행의 부실처리 촉진을 통해 금융기반 강화

○ 일본의 잠재력

- 세계적인 부품·소재기업이 다수 존재
-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, 가계 건전성이 유지 (가계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극히 낮음)
- 거대한 내수시장 (일본은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3위의 내수시장 기반유지)

◎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

- 일본이 10년을 인내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직시
 - ⇒ 한국경제는 제1, 2차 오일쇼크,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한 우수 잠재력 보유
- 기업과 가계의 활력회복이 문제해결의 시발점
 - ⇒ 가계부실 해소, 규제 완화, 노사안정, 정책불확실성 해소 등을 추진
-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잠재력을 확충
 - ⇒ 수익성있는 미래사업 발굴, 부품·소재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
- 기업은 미래성장을 위한 “씨앗 뿌리기”에 주력
 - ⇒ 시장기회선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무형 투자를 재개
 - ⇒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“새로운 비즈니스 모델” 모색

- 배경 : 기협중앙회와 전경련은 11. 19(월) 대·중소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대·중소기업간 상호윈윈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

○ 주요내용

- 대·중소기업 공동물류사업 추진
- 특허기부제도의 확립으로 대기업 미활용 특허의 중소기업 활용추진
- 기술개발 성공·실패 사례집 발간
- 중소기업업체 대상 유통업체 구매설명회 개최
- 대·중소기업 유통관행 실태조사 실시
- 대·중소기업 협력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

□ “이래서 투자가 안된다” ('04. 11, 삼성경제연구소)

- 투자가 부진한 5가지 이유
 -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
 - '90년대 이후 투자결정은 경기회복이 확인되어야 투자하는 경향, 미래 불안감
 - 경기 상승기간 단축 등으로 설비확대에 대한 필요성 감소
 - 내수업체의 투자부진과 해외자본재 선호
 - 기업의 축소경영패턴 고착화
 - 외환위기 이후 “재무구조”중시 풍토로 기업가도 전정신 약화 및 투자부진
 -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대상 부족
 - 고임금,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생산입지 경쟁력 약화, 새로운 유망산업 부재
 - 투자를 견인할 새로운 조정자의 역할 미흡
 - 투자리스크를 짊어질 정부와 대기업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반면, 새로운 견인차인 금융산업의 역할 미흡

○ 시사점

CEO광장

□ 대기업,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적극 지원키로 ('04. 11, 기협중앙회, 전경련)

- 양성한 투자는 성장의 원천 : 기업투자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원동력
- 적극적인 투자마인드 회복이 필요
 - 기업은 투명성 제고 및 시장의 신뢰성 확보,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○정의 :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수는 떨어지게 되고 생활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지수는 높아지게 됨.

※'04. 12.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/4분기 앵겔계수는 28.4%로 2/4분기에 비해 1.2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이 같은 수치는 지난 '00년 3/4분기 28.5%이후 4년만에 최고 기록임.

경제산책

□ 내부회계관리제도

- 정 의 :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써 회사의 이사회, 경영진, 기타 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
- 내 용 : 자산 70억원 이상인 상장·비상장 기업은 자금거래 담당자와 회계장부 작성자를 구분하고, 내부회계관리규정, 내부회계관리자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, 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는 연말사업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첨부
- 별 칙 :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회계법인,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기업은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시행시기 : '05. 4월 (3월 결산법인인 2004회계연도 사업 보고서 제출시, 12월 결산법인인 2005회계연도 사업 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)

중양회 조사등 최근 주요활동

- 환율급락이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
 - 담당부서: 정책조사본부 조사통계팀 ☎ 02)2124-3212
- 2004년 12월중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
 - 담당부서: 정책조사본부 조사통계팀 ☎ 02)2124-3213
- 2004년 대·중소기업협력위원회 개최 ('04. 11. 29)
 - 담당부서: 정책조사본부 산업기술혁신팀 ☎ 02)2124-3187

□ 앵겔계수